

개인을 넘어 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글_편집실 사진_최재원

현대인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노동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질환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연결되며, 결국 사회문제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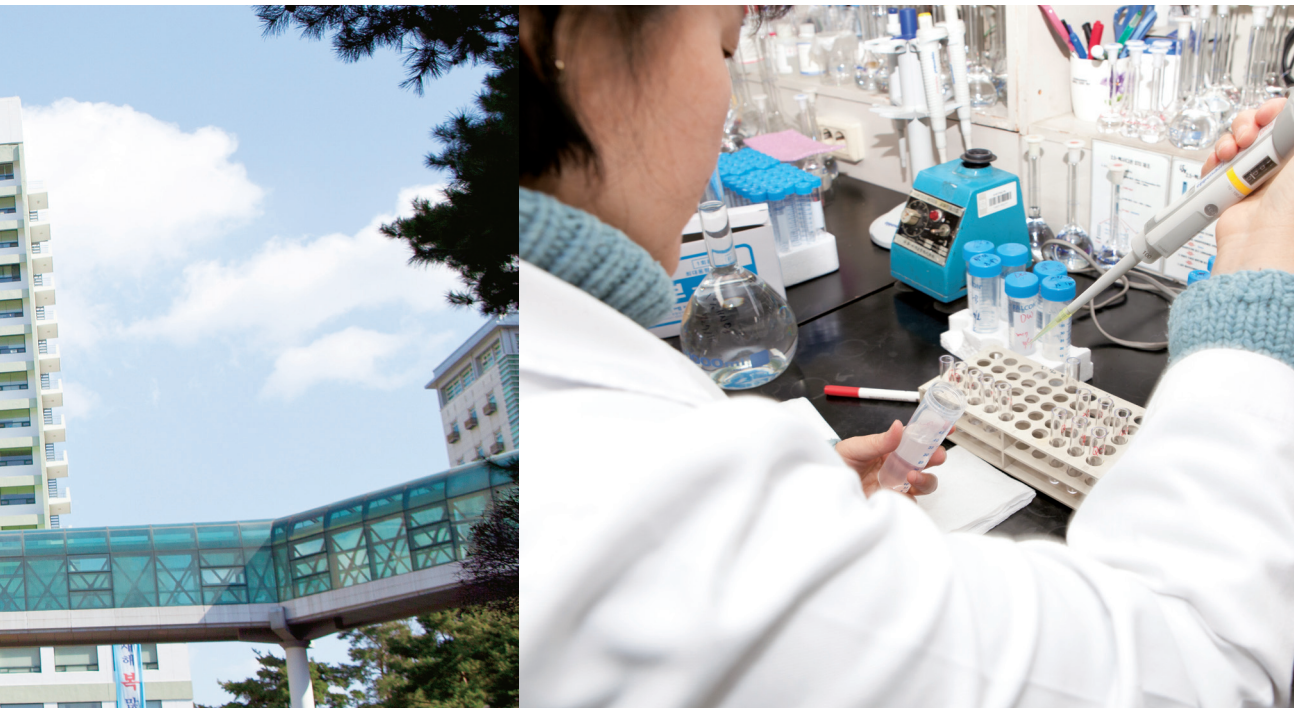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여전히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끊임없는 성토와 연구를 통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이다.



▲ 한국은 인력에 의지해 짧은 기간 동안 고도의 산업화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노출됐다. 직업병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관련 의학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직업 및 환경 질환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진단, 치료, 재활, 예방을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학문 분야가 '산업의학'이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송재철 교수는 "과거 산업의학(industrial medic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직업환경의학'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산업의학이라는 용어에는 '공장'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죠. 1, 2차 산업의 특정 직업병뿐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의 직업 관련 질환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어요. 의학의 개념 역시 건강증진까지 확대되면서 직업환경의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필요가 더욱 절실해지는 학문

직업환경의학은 '직업의학(Occupational medicine)'과 '환경의학(Environmental medicin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의학이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학문이라면, 환경의학은 우리 주변 환경에 포함된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





강장해를 예방하고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한 학문이다.

송재철 교수는 “직업의학은 작업환경을 관리해 직업병을 예방한다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일하는 사람의 전체적 건강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날 산업보건 체계가 정착되고 서비스 업종이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업의학의 범위도 더욱 확장되고 있죠” 과거에는 소음성 난청과 진폐증, 암과 중독 등 직업성 질환을 주로 진단하고 관리했으나 최근에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한편, 환경의학은 직업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편이었다. 그러나 새

집중후군과 내분비교란물질, 아패류 섭취로 인한 중금속 중독, 폐광지역의 주민 건강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의학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공공의 복지, 공공의 건강을 위한 직업환경의학

송재철 교수가 생각하는 직업환경의학은 공중보건학적 의미가 강하다. “공공의 복지, 공공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상당 부분 관여해야 하는 공공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대 1로 사람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많아요. 순수 임상의학이 아니라 공공과 임상이 섞여 있는 거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이 시작된 것은 1991년, 한양대학교병원에 산업보건센터가 개설되면서부터다. 이후 1996년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가 생긴 그 해 산업의학과 1기 전공의를 모집했다. 2000년 산업의학교실과 산업의학과를 개설했고, 2011년 오늘의 직업환경의학교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5년 개설된 구리병원의 건강검진센터와 함께 국내 직업환경의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에서는 근로자 건강관리와 산재제도에 관한 수많은 연구업적을 내고 있으며, 소외되어 있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보건관리와 정책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직업병 인정 기준, 산재 보상정책 및 농·어업인의 질병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



직업의학은
작업환경을 관리해
직업병을 예방한다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일하는 사람의
전체적 건강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알레르기질환의 발생 양상 변화와 실내오염 등으로 인한 새집증후군 등도 연구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직업의학과 환경의학의 성장 및 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와 더불어 예방대책 수립, 진료 지침 작성 등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